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1 No.4

ISSN : 2384-0358(Print) 2384-0366(Online)

한국 반려동물 장례 인식에 관한 연구

황규성, 김정래, 이충구, 김두성, 김성민

To cite this article : 황규성, 김정래, 이충구, 김두성, 김성민 (2015) 한국 반려동물 장례 인식에 관한 연구,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1:4, 13-17

① earticle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학술교육원은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earticle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www.earticle.net

<http://dx.doi.org/10.17703/JCCT.2015.1.4.13>

JCCT 2015-11-2

한국 반려동물 장례 인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wareness of the Pet Funeral in Korea

황규성*, 이충구, 김두성, 김성민, 김정래**

Kyu-Sung Hwang*, Choong-Goo Lee, Doo-Sung Kim, Sung-Min Kim, Jeong-Lae Kim**

요약 반려인 들이 늘어나고 반려동물 시장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반려동물의 장례 관련 연구는 미비하다. 반려동물 장례의 성장가능성을 타진하고자 반려동물 장례에 대한 인식을 설문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긍정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반려동물 유무, 연령, 종교, 결혼 유무 등이 있었다. 인식조사 결과에서 반려동물 장례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었으나, 현재 이를 수용할 반려동물 장례에 대한 준비는 미흡하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 반려동물 장례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반려동물의 장례와 사체처리를 동물보호법 상으로 통합하고, 반려동물 장례관련 대책마련과 체계화된 반려동물 전문 장례인력 육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주요어 : 반려동물, 장례, 인식, 한국

Abstract Even though the number of pet animal and breeder are increasing, there is little study related to the funeral of pet animal in Korea. In this paper, the factors affecting pet animal's funeral is conducted based on the survey. The study proves that the awareness of the pet animal funeral is positive but underprepared for pet animal's funeral. Therefore, pet animal funeral businesses operated on the permit system and the current law should be legalized while clarifying the difference between wild animal and pet animal. Also the professionals related to animal funeral should be trained.

Keywords : Pet, Animal, Funeral, Awareness, Korea

1. 서 론

최근 저출산, 독신자, 노부부 증가 등으로 인해 1~2인 가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은 2000년 15.6%에서 2012년 25.3%로 크게 늘어 우리 사회 가장 흔한 형태였던 4인 가구를 앞질렀으며, 오는 2025년에는 셋에 하나 꼴(31.3%)로 1인 가구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¹⁾ 많은 연구에서 1인 가구 증가가 반려동물의 증가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

다고 하였다. 1999년 미국의 '세계 미래학회'에서는 2035년부터 세계인구의 증가세가 멈추는 대신 반려동물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였고¹⁾, APPA(American pet products association)에 따르면 미국내 가구당 63%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으며, 10년 전에 비해 56%증가한 것이라 보고하였다.³⁾ 2015년 국내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내 가구는 전체의 18%이며, 반려인의 수는 약 10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⁴⁾

반려동물의 증가⁵⁾에 따라 반려동물의 죽음 또한 증가하며, 이후 반려동물에 대한 사체 처리 및 장례에 대

*정회원,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주저자)

**정회원, 을지대학교 의료공학과(교신저자)

접수일자: 2015년 4월 7일, 수정완료일자: 2015년 9월 8일

게재확정일자: 2015년 10월 15일

Received: 7 April 2015 / Revised: 8 September 2015

Accepted: 15 October 2015

**Corresponding Author: jlkim@eulji.ac.kr

Dept.: Biomedical Engineering, Eulji University

한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2013년)에서는 동물 보호법 대상인 개의 숫자는 약 127만 마리며, 이 중 약 43만 마리가 등록됐고 해마다 최소 12~13만 마리가 사망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2월 기준으로 전국의 반려동물 장례업체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곳은 16개소로,⁶⁾ 1개 업체가 하루에 처리하는 건수가 3~10건임을 감안하면, 365일 내내 10건씩 처리한다는 극단적인 가정 하에도 5만여 건을 넘지 못한다. 이처럼 대상을 전체 반려동물이 아닌 개로 한정 지어도 업체가 처리 가능한 수를 넘어선다.

이렇듯 반려동물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반려동물 장례의 증가가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 반려동물의 장례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진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반려동물 장례에 대한 현재 인식을 조사하여 향후 필요적으로 증가할 반려동물 장례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향후 반려동물 장례 산업 발전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5년 8월 20일부터 9월 3일까지 총 266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인원의 연령은 10대 15명, 20대 136명, 30대 24명, 40대 53명 50대 3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성별로는 남성 110명, 여성 155명으로 구성되었다.

1) 조사도구

조사도구는 Google forms를 사용하여 반려 동물의 유무, 종교(기독교, 천주교, 불교, 무교), 결혼유무 등으로 항목을 나누어 조사하였다.

2) 분석방법

인식도 및 신뢰도 문항은 크게 “긍정적”, “보통”, “부정적”인 3점 척도로 분석하였다.

검정방법은 긍정적 인식의 유의도 측정을 하기 위해 Chi-square test(카이제곱검정)을 사용하였으며,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Multiple Logistic regression(다중 로지스틱 회귀분

석)을 사용하였다. 유의성의 검정은 P-value 0.05 미만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하였고 모든 자료 분석은 SAS 9.2 Version(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을 사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동물장례 인식조사(Table 1)

동물장례에 대한 필요성 인식조사에서 반려동물 유무(<0.001), 결혼 유무(0.030), 연령(0.033), 종교(0.036)에 따라 인식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0.210)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이 나오지 않았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77.27%, 키우지 않는 사람은 56.41%로 키우는 사람이 키우지 않는 사람에 비해 더 높은 수치로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고, 키우지 않는 사람은 14.74%, 키우는 사람은 3.64%로 키우지 않는 사람이 키우는 사람에 비해 더 높은 수치로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두 그룹 간에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결혼 유무에 따른 인식도 조사에서 기혼자가 71.88%, 미혼자가 61.18%의 분포를 보이며, 미혼자에 비해 기혼자가 더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부정적인 인식에서도 기혼자가 12.50%, 미혼자가 8.82%의 분포를 보여, 부정적인 인식 또한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인식도 조사에서 40대 이상 연령에서 73.63%로 다른 연령에 비해서 가장 높은 분포로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고, 10대에서 20대 연령은 62.25%, 30대 연령은 50.00% 순이었다. 30대 연령의 경우, 다른 연령에 비해 동물장례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높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40대 이상이 동물장례에 대해 긍정적 인식은 높았으나, 10대에서 20대 연령에서 부정적 인식이 다른 연령보다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종교별 인식조사에서 천주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긍정적 인식이 84.78%로 다른 종교에 비해 가장 높은 분포로 나타났다. 불교가 71.43%, 기독교 62.34%, 무교 57.39%로 다른 종교에 비해 무교를 가

진 사람들이 동물장례에 대해 긍정도는 낮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의 11.69%가 부정적 인식에서 가장 높게 분포하였다.

표 1. 동물 장례에 대한 인식 분포

Table 1. Distribution of the Pet Funeral Awareness.

Classification	Positive (N=173)	General (N=66)	Negative (N=27)	P-value
Pet animal				
breed	85(77.27)	21(19.09)	4(3.64)	<0.001
no breed	88(56.41)	45(28.85)	23(14.74)	
Sex				
male	74(67.27)	22(20.00)	14(12.73)	0.210
female	99(63.46)	44(28.21)	13(8.33)	
Age				
10 ~ 29 years	94(62.25)	45(29.80)	12(7.95)	0.033
30 ~ 39 years	12(50.00)	7(29.17)	5(20.83)	
over 40 years	67(73.63)	14(15.38)	10(10.99)	
Religion				
Christianity	48(62.34)	20(25.97)	9(11.69)	0.036
Catholicism	39(84.78)	3(6.52)	4(8.70)	
Buddhism	20(71.43)	6(21.43)	2(7.14)	
None	66(57.39)	37(32.17)	12(10.43)	
Marital status				
married	69(71.88)	15(15.63)	12(12.50)	0.030
single	104(61.18)	51(30.00)	15(8.82)	

가 있는 사람들에서 긍정적 인식이 높은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기독교는 무교에 비해 1.23배 긍정적 인식으로 판단되었고(OR=1.23, 95% CI 0.68-2.22), 천주교는 무교에 비해 4.14배 긍정적 인식으로 판단되었다(OR=4.14, 95% CI 1.71-10.02).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1.62배 긍정적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었다(OR=1.62, 95% CI 0.94-2.79).

표 2. 반려동물 장례의 긍정적인 인식과 관련된 요인

Table 2. Related factor of positive perceptions of pet animal's funeral.

Classification	OR	95% CI
Pet animal		
no breed	1	
breed	2.63	1.52-4.54
Sex		
female	1	
male	1.18	0.71-1.98
Age		
10~29 years	1.65	0.69-3.92
30~39 years	1	
over 40	2.79	1.11-7.05
Religion		
none	1	
Christianity	1.23	0.68-2.22
Buddhism	1.86	0.76-4.56
Catholicism	4.14	1.71-10.02
Marital status		
single	1	
married	1.62	0.94-2.79

2. 반려동물 장례에 관한 인식 비교(Table 2)

반려동물 장례에 관한 긍정적 인식과 관련된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반려동물 장례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키우지 않는 사람에 비해 2.63배 정도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OR=2.63, 95% CI 1.52-4.54), 남성이 여성에 비해 1.18배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되었으나(OR=1.18, 95% CI 0.71-1.98)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30대에 비해 40대 이상자가 2.79배 긍정적 인식으로 판단되었다(OR=2.79, 95% CI 1.11-7.05). 무교에 비해 종교

IV. 고찰 및 결론

APPA(American pet products association, 2009)에 따르면 미국내 가구당 63%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으며, 10년 전에 비해 56%증가한 것이라 보고하였다. 2007-2008년 미국 가구에 거주하는 전체의 83%가 개와 고양이로, 1994~2004년 사이에 17백만 달러에서 34.4백만 달러로 펫산업이 성장하였다. 2009년에는 44.4백만 달러로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³⁾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 아이들을 출가시킨 사람들, 외동 아동, 자식이 없는 부부들, 이혼한 사람들에서 반려동물의 이용정도는 매우 높아지고 있다.^{7,8)} 특히 사람과 반려동물 사이의 생리적 및 감정적 친밀감이 사람과 동물사이를 구분하는 개념적 장벽 (conceptual barrier)을 감소시켜, 중국에는 이러한 장벽이 무너지게 되며, 이러한 결과로 반려동물의 죽음에 대해 본인의 자식을 잃었을 때의 상실감을 표현하며, 반려동물의 장례 또한 사람과 동일하게 치루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고 하였다.³⁾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일본에서는 애완동물을 위한 장례식, 무덤, 묘지 및 추모식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반려동물 관련 사업은 매년 두자리수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⁷⁾

2012년 국내 1인 가구는 전체가구의 25.3%(약 454만여 가구)로 높은 수준이나 10년 동안 해마다 3~4% 증가 하여 2020년 전체 가구의 30%비율을 차지할 전망이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내 가구 수도 증가하여, 2015년 경기연구원에 의하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내 가구 수는 전체의 18%이며, 반려인 수는 약 1000만명을 넘어섰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였다.⁴⁾

향후 국내 반려동물 장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나, 국내에 반려동물 장례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 관련 연구가 전무하여, 수요예측 및 반려동물 장례관련 정책수립 근거를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국내 반려동물 장례에 대한 인식에 대해 알아보고자 설문조사를 한 결과,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보다 키우는 사람의 긍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40대 이상, 30대, 10~20대 순서로 긍정적 인식을 보였다. 또한 종교 유무와 종류에 따라 천주교, 불교, 기독교, 무교 순서로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으며, 미혼자 보다는 기혼자가 긍정적 인식을 보임을 관찰할 수 있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 40대 이상,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서 반려동물 장례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짐을 알 수 있었고, 모든 경우에서도 부정적 인식은 매우 적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인식조사 결과에 의해 국내 반려동물 장례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며, 증가하는 반려동물의 수와 시장에 비례하여 반려동물 장례관련 산업 또한 급상승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내 등록된 동물장묘업체는 전국 16개소에 불과하며, 그 중 화장이 가능한 업체는 2013년 기준 6개소로 나머지 업체는 불법으로 운영되는 현실이다.⁶⁾ 늘어나는 반려동물 장례 수요를 현 허가받은 동물장묘업체의 수로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충분한 공급을 위한 대책 마련과 체계화된 반려동물 전문 인력 양성 등 수급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현재 동물보호법⁹⁾에서 규정되어진 동물장묘업은 장묘업의 허가만을 다루고 있고,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 관리법¹⁰⁾에서 다루어지고 있어 반려동물 장례에 대해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법률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향후 두 개로 나누어진 반려동물의 장례와 사체처리를 동물보호법 상으로 통합하고, 반려동물 장례관련 대책마련과 체계화된 반려동물 전문 장례인력 육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2014 blue ocean consumer 6 looking for statistics. Statistics Korea. pp.1~15, 2014. 통계청 대변인실. 통계로 찾은 2014 블루슈머 6. 통계청. 1~15, 2014.
- [2] HY Kim, Future prospect of pet furniture business and market penetration strategy. Theology Graduate School of Hoseo University. pp.1~65, 2003. 김희연, 「애견가구 산업의 전망과 시장진입 전략」,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65, 2003.
- [3] S. Brandes, The meaning of american pet cemetery gravestones. Ethnology, 48(2); 99~118, 2009.
- [4] JI Lee, SJ Lee, Donggeurami. Current situation and main issue of pet. Issue & Analysis. 188. pp.1~ 20, 2015. 이정임, 이수진, 동그라미. 반려동물 현황과 주요 이슈, 경기연구원. 1~ 20, 2015.
- [5] SH Kim. Consumption realities and improvement plan associated with pet. Korea Consumer Agency. pp.1~48, 2013. 김선희. 반려동물 관련 소비실태 및 개선방안, 한

- 국 소비자원. 1~48, 2013.
- [6] Preneed Magazine. Illegal funeral business of pet unyielding. Necessity of improvement system. pp.1~78, 2015.
상조매거진. 반려동물 장묘 불법영업 기승. 제도개선 필요. 1~78, 2015.
- [7] E. Kenney. Pet funerals and animal graves in Japan. Mortality. 9(1); 42-61. 2004.
- [8] Y. Zhu and M. Liu. Discussion of the metropolis pet funeral and burial service. Future communication, computing, control and management. 142; 267-273, 2012.
- [9] Animal protection laws(law No. 130235)
동물보호법 (법률 제 130235호) 제 5장 제 32조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1항 1호, 제 33조 (영업의 등록), 제 34조(영업의 신고), 제 36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동 시행규칙 제 36조(영업의 세부범위), 제 37조(동물장묘업 등의 등록)
- [10] Wastes Control Act(law No. 13038)
폐기물관리법 제 2조(정의), 제 3조(적용범위)

